

# **원주역사박물관 토요인문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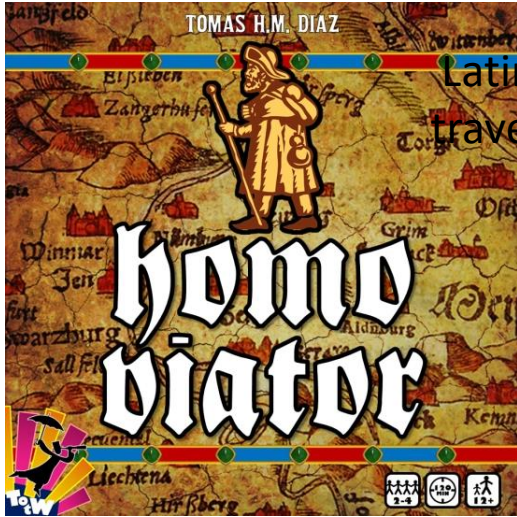
## **주제: 문화를 여행하다**

**일시: 2019년 3월 9일(토) 14:00~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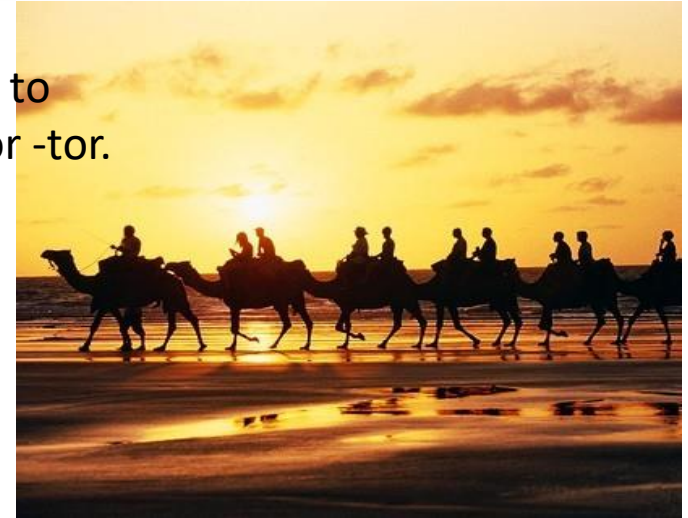
**장소: 원주역사박물관**

**강사: 연호탁 (가톨릭 관동대)**

# Homo Viator의 세계여행기



Latin viātor equivalent to viā(re) to travel (derivative of via way) + -tor -tor.



# 여행과 문화, 그리고 사람

---

- ┌ 나는 왜 여행을 하는가?
- ┌     공간 이동-일상으로부터의 탈출
- ┌     시간 이동--현재 속에서 과거를 본다.
- ┌     문화의 유전자 이해
- ┌     지적 호기심의 충족
- ┌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

진정한 여행자는 소아적 자기애에서 벗어나  
너그러운 시선으로 타인과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다.

# 여행과 문화, 그리고 사람

---

└ 문화의 영역

└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형이하학적  
영역에서

└ 신앙과 삶의 가치와 같은 형이상학적  
분야에

└ 이르기까지 **사람살이의 총체**

# **인문학강좌에 불러온 여행 좀 한 인문학자의 소소한 이야기**

## **“문화는 상대적이다!”**

### **-날줄 씨줄 엮어서 문화 읽기**

**Hello!**  
**Nice to meet you**



# 누구서요?—한외모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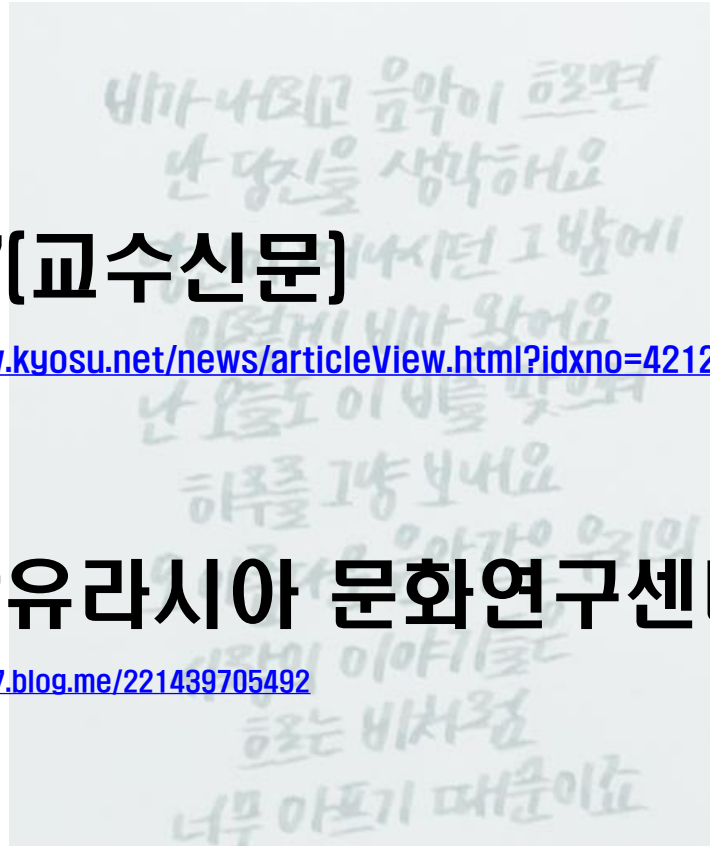
---

2017[교수신문]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2120>

[중앙유라시아 문화연구센터]

<http://flora67.blog.me/221439705492>



# 延昊鐸에 대하여

---



사진 속 수염을 기른 연교수는 교양 없고,  
품위도 없고, 비문화인처럼 보이나요?



# Style

---

- ⌞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다.=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 ⌞ 스타일은 차이에 있다.
- ⌞ 사고의 차이, 언어 사용의 차이, 행동 양식의 차이, 옷차림의 차이, 삶의 방식의 차이...
- ⌞ 이런 모든 차이가 문화다.
- ⌞ 스타일의 유형:
  - ⌞ 강남 스타일, 원주 스타일, 강릉 스타일, 강원도 스타일, 한국 스타일, BTS 스타일, 지구 스타일, 연호택 스타일...

# 延氏 스타일

---

- ㄴ Free 하다!
- ㄴ 가지치기에 능하다.
- ㄴ This means 즉, 아는 게 많다.
- ㄴ 아는 게 많다는 건?
- ㄴ --보고 듣고 배운 게 많다는 것.
- ㄴ 연's 배경
- ㄴ 30대 초반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여 개 국 여행 경험
- ㄴ 학자로서의 공부 경험(오래 숙성된 앎)
- ㄴ 고유한性情과 껌이 된 강의 스타일
- ㄴ

# 비빔밥 강의 스타일

---

- ♪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타고난 성향과 껍이 된 강의 스타일을 버무려 문화 이야기라는 멋진 천 직조
- ♪ 문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가운데 여행의 유익함과 즐거움 전달

# 문화의 즐거움

---

- ↳ 문화 알기의 즐거움
- ↳ 색다른 것, 몰랐던 것, 과거의 것, 우리의 것, 남의 것에 대한 호기심과 그의 충족에 따른 묘미, 즐거움
- ↳ 문화의 즐거움을 얻는 방법
- ↳ 여행과 독서

# 여행의 즐거움

---

- ♪ 여행의 즐거움은 문화 알기의 즐거움
  - ♪ 사람 살이의 다양성 인식(인식의 지평 확장)
  - ♪ 존재의 가치 수긍(삶의 긍정 혹은 수용)
  - ♪ 염세에서 환희로(삶은 아름다워라)
- 
- ♪ 무엇보다 여행을 통한 문화읽기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식의 편협주의 탈피
  - ♪ 옹졸하거나 독단적이지 않고, 너그럽게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

# 발단: 만남



# 만남: 김연자와 BTS, 그리고 챔프

- ┆ 우리 만남은 ㅇㅇ이 아니야
- ┆ 운명적, 진짜 같은 가짜, 추억으로 남을 그런 만남

## ┆ <최근 한국의 핫 이슈 5>

- ┆ Amor Fati
- ┆ Fake Love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 ┆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
- ┆ We Are The Champions.

## ┆ Love Yourself!!!

┆



# 추운 날 몸부터 풀고...

---

┆ 초절정 섹시 댄스남

┆ [http://www.youtube.com/watch?v=9T12Jz4JoVU&feature=youtube\\_gdata\\_player](http://www.youtube.com/watch?v=9T12Jz4JoVU&feature=youtube_gdata_player)

┆ Haq Ali Ali Mula Ali Ali Manqabat by Nusrat Fateh Ali Khan

┆ <https://www.youtube.com/watch?v=Hgln8m6DFzA&t=648s>

┆ Sufi Soul Song: Kab Tak Mere Maula-Smita Bellur

┆ <https://www.youtube.com/watch?v=cBsBXNmI7h8>  
(장소: Taj Krishna, Hyderabad)



# 가짜 사랑(Fake Love) by BTS

<https://www.youtube.com/watch?v=-LnEhbdAMcI>



# Sappho(기원전 630~570년경)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8F%AC\\_\(%EC%8B%9C%EC%9D%B8\)](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8F%AC_(%EC%8B%9C%EC%9D%B8))

Klimt가 그린 사포

# Hetaira

- ⌞ ‘동지’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 ⌞ 고대 그리스 여류 시인 사포(Sappho)
- ⌞ 레스보스 섬에 젊은 처녀들을 위한 학교 설립
- ⌞ 이곳에 일신을 위탁하는 처녀들을 ‘hetaira’라고
- ⌞ 지칭
- ⌞ 여자들만 모여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이 섬을 여성들의 섬이라 부르면서 ‘레즈비언’이라는 용어 등장
- ⌞ 이후 고급 매춘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와전
- ⌞ a courtesan or mistress, especially one in ancient Greece akin to the modern geisha.



# 혹시 아시나요?

---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스〉 (1400년경 제작,  
작가불명,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 이 목판화는?

한스 발둥 그린, <아리스토텔레스와 필리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879096&memberNo=863236>



# 고대 희랍의 매춘부

- └ 딕테이라데스(포르나이): 화대 일일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 1오볼로스(6드라크마)
- └ 아울레트리데스: 연회장을 주요 무대로 활동한歌舞樂에 능한 매춘부
- └ 카타미테스: 주로 남성을 상대한 미소년 남창
- └ 헤타이라: 연회에서 부유한 남성의 파트너 역할 수행한 고급 매춘부. 하룻밤 화대 1미나(100드라크마)(약 반 달치 월급)
- └ \* 솔론(아테네의 참주)의 공창제 도입
  - └ --“정의로운 공익적 조치”
  - └ --당시 결혼 적령기 여성 14~18세, 남성 30세
  - └ --남녀 간 생물학적 격차와 공적 영역의 공백 메꿀 사회적 제도

# 책갈피 선물과 돈 키호테(Don Quixote)의 진실

『돈 키호테(Don Quixote)』는 누구의 작품?



#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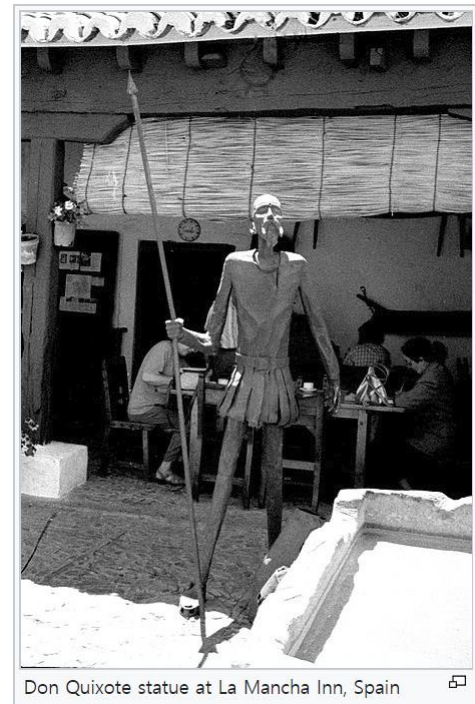
- ♫ 레알 마드리드, 투우, 하몽(프로슈토)
- ♫ 그라나다(Andalusia),
- ♫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가우디,
- ♫ 피카소, 바르셀로나(Catalonia) ,  
탱고(tango flamenco), 무적함대,  
콜럼버스와 카스티유의 군주 이사벨라 여왕,  
탱고와 반도네온(bandoneon, concertina  
의 일종(라틴 음악 연주용의 소형 육각형  
아코디언)으로 탱고 앙상블의 필수 악기)





# 돈 키호테(Don Quixote)의 진실

- ⌞ Miguel de Cervantes의 소설(1605년과 1615년에 2부로 출판)
- ⌞ 돈키호테가 아니라 돈 키호테
- ⌞ La Mancha의
- ⌞ 못 말리는 귀족(hidalgo)
- ⌞ 키호테 경(Sir Quixote)의
- ⌞ 좌충우돌 모험이야기



Don Quixote statue at La Mancha Inn, Spain

# 라만차의 풍차

┆ 라만차는 스페인 중부, 마드리드 남쪽 해발 610m 건조하지만 비옥한 고원지대에 위치

┆ 이름에는 뜻이 있다.



┆ La Mancha < Arb. المنشا *al-mansha*,  
┆ meaning “the dry land” or ‘wilderness’.

┆ The word mancha in Spanish literally means spot, stain, or patch.

# 스페인에 가면 연교수를 뭐라고 부를까?

---

- ⌞ 돈 연(Sir Yeon)>돈년(crazy girl)
- ⌞ 태국에 가서 “나 돈연(Sir Yeon)이야” 했더니, “I’m 놈연(Nom Yeon)”이라고.
- ⌞ 결과: 돈년(Sir Yeon) 실성(got mad).

# 月夜聞玉笛

## 달밤에 옥피리 소리를 듣다

- 誰橫玉笛暗飛聲 누가 옥피리 빗겨 불어 아득한 비성을 내는가
  - 散入秋風百感生 가을바람에 흩어져 들어오니 온갖 감회  
일어난다
  - 詞腦調高雲渺渺 사뇌조 곡조 높고 구름은 아득하도다(渺,  
아득할 묘)
  - 羅侯歌緩月盈盈 라후가(처용가)는 느릿하고 달은 충만하도다
  - 箱(霜)粘鮑石衣冠盡 서리 내린 포석정에 사람 그림자 사라지고
  - 木落鷄林星斗明 낙엽 진 계림에는 북두성 별빛만 밝다
  - 不是欲吹腸斷曲 단장의 애끓는 곡을 불려한 건 아니건대
  - 故城淸夜更關情 고성에 밤이 밝으니 다시 옛정이 솟구친다.
- 每月堂 金時習(1435~1493)

# 처용가 [處容歌]

춤(처용무)은 다섯 무원(舞員)이 각각 청(동), 홍(남), 황(중앙), 흑(북), 백(서)의 단의(緞衣)를 오방에 맞추어 입고 서서 처용 가면과 사모를 쓰고  
홍록흉배(紅綠胸背), 초록천의(草綠天衣), 남오군(藍?裙), 홍방슬(紅方膝),  
황초상(黃賞), 금동혁대(金銅革帶)를 띠고 백한삼(白汗衫)을 끼고  
백피혜(白皮鞋)를 신고 춤을 춥니다. 수제천(壽帝天, 빗가락정읍)에 맞추어 두  
팔을 허리에 붙이고 청, 홍, 황, 흑, 백의 차례로 들어와 일렬로 북향하여 서서

“신라성대소성대(新羅盛代昭盛代)

천하태평라후덕(天下太平羅候德)

아흐~처용아비야”

하고 처용가를 가곡(歌曲) 언락(言樂)가락에 맞추어 부르고 나서 향당(鄉唐)  
교주(交奏)하면 처용 5인이 모두 허리를 굽힌 다음 5방으로 마주 서서  
춤추다가 소매를 들어 안으로 끼는 홍정(紅程) 도둑춤을 추고 나서 발을 올려  
걸으며 무릎을 굽히는 발바닥춤을 추며 북향하여 섰다가 가운데 황(黃)과  
사방은 반대로 향하여 춤을 춥니다.

출처: <https://blog.ulsan.go.kr/707> [울산광역시 홍보 블로그 울산누리]

# 雙花店

- ㄴ 雙花店쌍화점에 雙花쌍화 사라 가고신댄
- ㄴ     만두가게에 만두 사러 갔더니
- ㄴ 回回회회아비 내 손모글 주여이다.
- ㄴ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었더라.
- ㄴ 이 말싸미 이 점店뵈긔 나명들명
- ㄴ     이런 말이 이 가게 밖에 드나들면
- ㄴ 쥌고맛감 샅기 광대 네 마리라 호리라.
- ㄴ     조그만 새끼 광대야, 네가 말한 것이라 하리라.
- ㄴ 그 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 ㄴ     그 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 ㄴ 그 잔 데같이 덤거츨니 없다
- ㄴ     그 둘이 잔 데같이 뒤엇겨진 데가 없다.

# 雙花店

ㄴ 작자

ㄴ --고려 충렬왕대의 속요로 지은이 미상

ㄴ --고려사 악지에 한역된 오잠이 지은 삼장(=개경에 있던 삼장사)과 쌍화점 2련 동일

삼장사에 불을 켜러 갔더니만  
그 절 지주 내 손목을 쥐더이다.  
이 소문이 이 절 밖에 나며 들며 하면  
다로러거디러 조그마한 새끼 상자 네 말이라  
하리라  
더러둥성 다리러디러 다리러디러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잠자리에 나도 자러 가리라  
위 위 다로러거디러 다로러  
그 잔 데 같이 답답한 곳 없다(난잡한 곳이  
없다)

# 쌍화점은 만두가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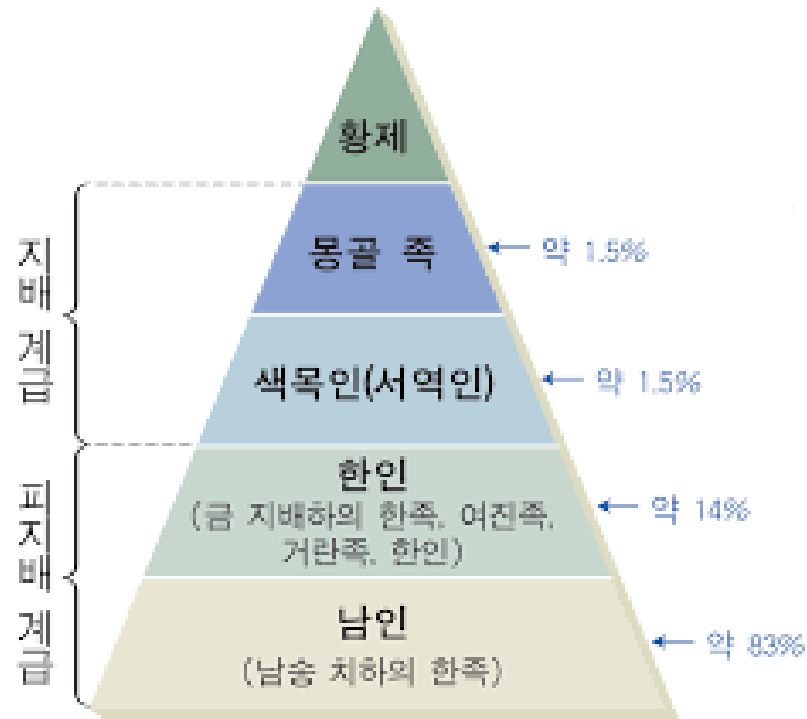
---

- ㅊ 만두의 모양이 쌍화(인동초)로 보여 쌍화라고 불렀다.
- ㅊ 쌍화는 아라비아 상인의 세공품이다.



# 회회아비는 누구?

- ↳ 이슬람교를 믿는 위구르족. 위구르족은 색목인에 속하는 계층.



# 색목인



# 고마(妾)를 좋아한 고려 사내들

---

- ㄴ 휘휘回回아비 vs. 샷기광대(새끼 광대)
- ㄴ 절 지주 vs. 조그마한 샷기상좌(새끼 상좌)
- ㄴ 우물 용 vs. 조그마한 드레바가(두레박)
- ㄴ 술 도가 아비 vs. 조그마한桔구비가(시궁 박아지)

# 쌍화점으로 보는 시대상

---

- ㄴ 동서 무역 성행
- ㄴ 자유 연애
- ㄴ 종교적 엄숙주의의 부재
- ㄴ 저렴한 화대
- ㄴ 만두 노점, 밀의 전래
- ㄴ 하이브리드 사회(인종, 언어, 종교 등 혼용)
- ㄴ 회족, 만두가게 혹은 보석점,

# 나도 방이 필요해요

└ 마지막 모계사회

└ 모썩족의 아썩혼

└ 모썩족의 성인식



# 앉아서 오줌 누는 남자

---

ㄴ 무슬림의 알라 숭배

ㄴ 요즘 우리는?

ㄴ 서서 오줌 누는 여자



# 작명관습의 차이

ㄴ 칭기스칸

ㄴ 조지 부시

ㄴ 레오나르도 다 빈치

ㄴ 오사마 빈 라덴

ㄴ 호니치, 모리치, 테무치, ...





# 욕망의 음식

└ 채식주의자의 물고기 사랑

└ 가지가지 디저트

└ 로콤, 가즈, 젤라또, 까놀리, 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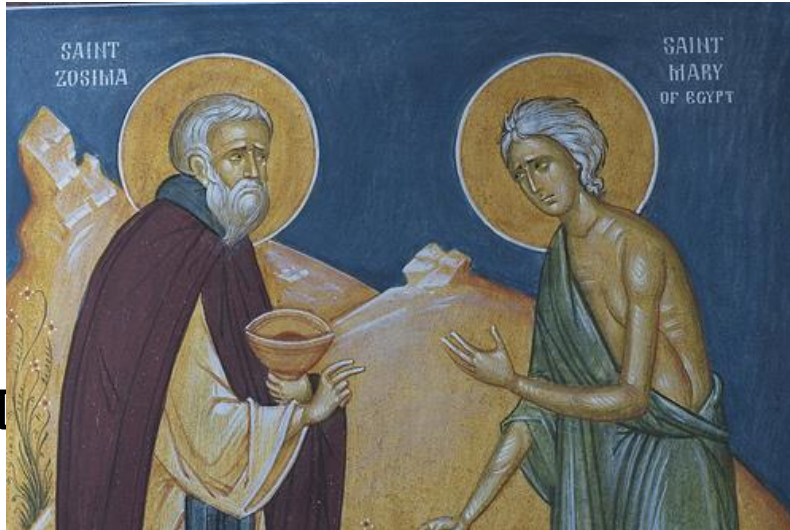


# 알몸의 미학



로마의 대중목욕 문화

# 알몸의 미학



사도 바울

이집트의 성

⌋ 정화의례  
⌋ 삼월상사일의 계육 풍습  
⌋ 기독교 세례 의식  
⌋ 살수절



# 알몸의 미학

ㄴ 러시아 목욕탕 바냐와 베닉





# 베르사이유 궁전



# 향수 이야기

└ 냄새와의 전쟁

└ 양귀비

└ 베르사이유 궁전 화장실의 비밀

└ 하이힐의 탄생

└ 터키의 갈로시(사프란볼루)

└ 우리나라 삼국시대 진신과 나막신





# 뒤틀린 전족 사랑



# 뒤틀린 전족 사랑

- ┆ 삼촌금련과 금련벽
- ┆ 문화가 된 전족
- ┆ 전족미인 선발대회



# 치장의 욕구

┌ 문신

┌ 마오리족

┌

┌ 남자들의 화장

┌ 아이새도우의 탄생

┌ 장신구

┌ 미얀마 천연 화장품

┌ 타나카





화장을 한 고구려 시종(고구려 상영총 고분벽화)



고구려시대 '양볼에 연지'

신원복 '미인도' 속의 여인



조선시대 '백분 바른 얼굴'



1970년대 '초록빛 눈매'



# 선조의 귀고리 금지 교지

- ㄱ 신체(身體)와 발부(髮膚)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것이니 감히 훼손(毀傷)하지 않는 것이 효(孝)의 시초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사내아이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 중국 사람에게 조소(嘲笑)를 받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이후로는 오랑캐의 풍속을 일체 고치도록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서울은 이달을 기한으로 하되 혹 꺼리어 따르지 않는 자는 헌부가 엄하게 벌을 주도록 할 것으로 승전(承傳)을 받들라. (선조 5년 9월28일(辛亥). 젊은 사내들이 귀를 뚫고 귀고리 하는 풍조를 금하도록 하다.)
- ㄱ 備忘記傳于政院曰: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我國大小男兒, 必貫穿其耳, 作環珥而懸之, 取譏於中國, 亦可羞愧. 自今後, 一切痛革胡習, 曉諭中外. 京中則限今月, 其或憚不卽從者, 憲府嚴加懲罪, 以此捧承傳可也.





# 라마단과 대추야자

- └ 라마단
- └ “더위와 건조함을 태우다”라는 뜻의 ‘라미다’에서 비롯됨.
- └ 이슬람력으로 아홉 번 째 달
- └ 금식은 왜 하는가?
- └ 이슬람의 다섯 기둥 중의 하나
- └ 코란을 계시 받은 날을 기념
- └ 위장의 위밍업을 위한 대추야자





# 셰이크 로트프 알라 모스크



# 이슬람(Islam)

---

- ⌞ 이슬람이 없었다면, 서양도 없었다.
- ⌞ ‘Islam’은 ‘복종·순종’이라는 의미
- ⌞ 이슬람에 대한 오해나 편견 불식 필요
- ⌞
- ⌞ 무슬림(Muslim)의 기본 덕목
- ⌞ “낮선 이에게 친절하라.”

# Purdah

ㄴ 원뜻: 'curtain' -- 여성 격리 관습



# 이슬람의 다섯 기둥 [Five Pillars of Islam]

---

↯ 샤리아(이슬람법)에 근거한 수니파 무슬림의 가장 기본적인 다섯 의례(실천: dīn)

## 1. 신앙고백(샤하다)

- ↯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 ↯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라는 선언.

## 2. 기도(살라트)

- ↯ 하루에 다섯 번 알라에 바치는 기도.

## 3. 자선(자카트)

- ↯ 자산의 2.5%, 교역품의 2.5%, 농업 생산의 5-10%를
- ↯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



# 이슬람의 다섯 기둥 [Five Pillars of Islam]

---

- └ 4. 단식(사움)
  - └ 라마단(이슬람력 9월) 한 달 동안 일출부터 일몰까지
  - └ 음식 및 음료의 섭취와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 5. 메카 순례(하지)
  - └ 이슬람력 12월(둘 히자)에 행하는 성지 순례.
  - └ 경제적, 신체적 능력이 있는 무슬림이라면
  - └ 일생에 꼭 한 번은 하지를 행하는 것이 필수.

# Muhammad는 누구인가?

무함마드는 가난했던 삼촌 아부 탈립의 소개로 부자였던 과부 카디자의 고용인으로 들어가 그녀를 대신해 시리아 지방으로의 대상 무역업에 뛰어든다.

카디자는  
무함마드의 정직성과 신실함에  
깊은 감명을 받고  
15살이나 어린  
무함마드에게 청혼을 한다.



# 췁코파이의 비밀



오리온 초코파이냐, 롯데초코파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 당신의 선택은?

ㄴ 신라면 줄까, 진라면 줄까?





# 먹을까, 말까?

ㄴ 영양탕은 진짜 영양탕?



# 아랍어 인사

---

♪ --As-salamu alaykum!

♪ (원뜻: 'peace be upon you'; 'hello', 'hi' or 'good day')

♪ --Wa alaykumu s-salam!

♪ --줄여서 Salām! (아프가니스탄, 이란)

# 무슬림과의 인사법

---

- ⌞ 일반적으로 인사와 함께 악수하고 손을 가슴에 댄다.
- ⌞ 아라비아에서는 인사말과 함께 오른손으로 악수하며 양 볼에 번갈아 두 세 차례 볼맞춤  
⌞ (cheek to cheek kisses).
- ⌞ 파키스탄에서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나누고 포옹한다(동성 간에만).

# 아랍인과 인사

아랍세계에서 인사말은 보통 길고, 일종의 의식.

오랫동안 악수를 하며, 악수 후에도 대화 도중 손을 잡고 있기도 한다.

무슬림은 하나님 알라에게만 절을 하기 때문에,  
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이에게 절을 하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 아랍인과 인사

- ㄴ 여성의 경우, 오른 손을 서로 맞잡고 그 손을 입 쪽으로 가져간다. 그리고 볼에 키스할 때와 같이 키스하는 소리를 낸다.
- ㄴ 가장 보편적이며 격식을 갖춘 인사말은
- ㄴ '앗살람 알라이쿰'
- ㄴ (여러분에게 (평화가있기를).
- ㄴ 친구끼리는 악수를 하지만,
- ㄴ 매우 친한 사이이거나
- ㄴ 오랜만에 만났을 때는
- ㄴ 포옹을 하거나 이마나
- ㄴ 어깨에 키스할 수도 있다.
- ㄴ 특히 동성 간에는
- ㄴ 포옹이 일반적.



# 아랍인의 예절

---

- ⌞ 항상 새로 도착한 사람이 먼저 인사
- ⌞ 말 탄 사람이 걸어가는 사람에게
- ⌞ 걸어가는 사람이 서 있는 사람에게
- ⌞ 서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
- ⌞ 수가 적은 무리가 수가 많은 무리에게
- ⌞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상식

# 중동 한류 기지 EMAKO

- ⌞ 두바이 한류 팬 연합
- ⌞ The United Arab Emirates + Korea



# 유럽인들의 인사법

- └ --Combien de bises?
- └ (볼 키스는 몇 번이나?)
- └ --며느리도 모르는 프랑스식
- └ 볼 키스(bise) 횟수
- └ --영국의 The Times:
- └ “볼맞춤은 같은 연배의 친구나
- └ 가족 간에 행해지며
- └ 여성이라면 상관없지만, 남성끼리는
- └ 매우 친하지 않거나 가족이
- └ 아니라면 하지 않는다.”



# 할랄 식품(Halal)

- 할랄 식품으로 인증하는 과정에서 위생 검사를 함께하므로, 할랄 인증 마크는 이슬람권에서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로 여겨진다.
-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산품이라면 생수 등에도 할랄 식품 인증을 받기도 한다.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식당 역시 할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 하람 식품(Haram Food)

---

- ⌞ 하람 푸드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육류는 돼지고기,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 짐승, 송곳니가 날카로운 육식동물, 때려잡거나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죽인 짐승의 고기, 다른 야생동물이 먹다 남긴 고기를 포함한다.
- ⌞ 취하게 하는 알코올 음료
- ⌞ 피와 피로 만든 음식(순대나 선지국 등)
- ⌞ 끓인 포도 주스
- ⌞ 위에 언급된 것들로 오염된 음식류

# 다비하(Dhabihah)

---

- ⌞ 이슬람 전통의 도축 방법
- ⌞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성인 무슬림이 행한다.
- ⌞ 도축할 때는 해당 동물의 머리를 메카로 향하게 한 다음 기도문을 외치며 단번에 목을 끊어 즉사시킨다.
- ⌞ 이슬람에서는 죽은 동물의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그대로 동물을 내버려둔다.
- ⌞ 도축 전에 동물을 기절시키지 않기 때문에 잔인한 동물 학대라는 지적이 있다.
- ⌞ 이슬람 이민자가 많은 국가에서는 이슬람 명절에 바깥에서 다비하 방식으로 동물을 도축해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다.

# Pop-up Quiz

---

ㄴ 이래서 중국에서는

ㄴ 이슬람을 \*\*\*라고 한다.

ㄴ 清真教



# Pop-up Quiz

---

- ⌞ 무슬림을 접대하는 만찬에 사용될
- ⌞ 할랄 식품(육류)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1. 내가 직접 도축한다.
2. 무슬림 친구에게 부탁한다.
3. 중앙시장 정육점에서 사고 할랄이라 속인다.
4. 서울 친구에게 부탁해 이태원역 근처 이슬람 사원 주변 아랍 식당이나 정육점에 가서 사보내라고 한다.

# 알라가 허락한 한국 과자들!!!

---

- ⌞ 먹어도 되는 한국 과자, 먹으면 안 되는 한국 과자(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 ⌞ 크라운제과의 '국희땅콩샌드', 오리온의 '도도한 나초', 롯데제과의 '꼬깔콘 고소한 맛', 해태제과의 '아이비' 크래커, 롯데제과의 '빼빼로' 시리즈, 오리온의 '오! 감자', 크라운의 '콘칩' 등. 수입 크래커인 '다이제스티브'와 '로투스'도.

# 고래고기는 하람일까, 할랄일까?

터키에서는 고래고기를 하람 푸드로 취급.  
고래는 예언자 유누스를 삼킴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전한 동물이기 때문.  
쿠란: "바다에서 잡은 것은 모두 너희의  
음식으로 허용되느니라.(5:96)"  
하디스: "바다는 깨끗하므로 그곳에서 잡아  
올릴 때 이미 죽어 있는 것도 모두 할랄"



# Qawwali(까왈리)

- ♪ 신과 예언자에게 헌신하는 수피(sufi) 음악
- ♪ Nusrat Fateh Ali Khan과 Haq Ali Ali Maula Ali Ali
- ♪ 동영상(누스라트 파떼 알리 칸)



- ♪ 동영상(누스라트 파떼 알리 칸을 위한 헌정 음악 Haq Ali Ali Maulaa Ali Ali)



# 이슬람의 금기[꾸란]

- ⌞ 유대인의 금기는 유대교의 경전인 토라에 명시적으로 규정
- ⌞ 결혼이나 약혼을 하지 않았어도 반지 끼는 것은 무방.
- ⌞ 남자가 금반지를 끼는 것은 금지. 은반지 선호. 오른쪽이나 왼쪽 어느 곳에 끼워도 무방.
- ⌞ 은이나 금으로 된 식기는 금지.
- ⌞ 백발은 검은색을 제외하고 다른 색으로 염색할 수 있음.

# 이슬람의 금기[꾸란]

---

- ⌞ 왼손으로 음식을 먹거나 왼손으로 물건을 주고받아서도 안 됨.
- ⌞ 아랍인에게 왼손을 내밀어서도 안 됨. 이는 “당신의 눈은 흉안이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 몸을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오른손은 선과 행운, 왼손은 악과 불행을 상징)



# 이슬람의 금기[꾸란]

---

- ⌞ 유일신에 대한 무시나 원망, 또는 배교 행위는 무슬림이 생명을 내걸고 지켜야 하는 성역.
- ⌞ 창조주 알라에 대한 모독이나 불신행위는 금기중의 금기.
- ⌞ 특히 코란의 훼손은 알라의 말씀에 대한 모독으로 금기시.
- ⌞ 2006년 9월 파키스탄에서 코란의 해설서인 타프씨르(Tafsir)가 찢어진 것이 발각되어 그 일을 벌인 장본인이 구금.

# 이슬람의 금기[꾸란]

---

- ⌞ 1980년대 파키스탄 「신성 모독법(Blasphemy law)」 제정
- ⌞ 법집행 절차와 상관없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처형되었는데 지금까지 23명이나 살해되었음
- ⌞ 1988년에는 영국 작가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가 소설 [악마의 시(The Satantic Verses)]를 발표하여 이슬람 세계를 경악케 했고 이듬해 이란의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로부터 처단 선고를 받음.

# 이슬람의 금기[꾸란]

---

- ⌞ 이슬람은 사업을 통한 자본의 증식은 허용하나 이자는 금기시
- ⌞ 이슬람은 금욕과 독신을 배격. 타당한 이유 없이 아내나 남편을 멀리하는 것도 엄금. 알라의 섭리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
- ⌞ 무함마드는 “결혼은 종교의 반을 완성한 것”이라고 전해~라!

# 결혼성립의 조건

---

- ⌞ 하디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결혼은 금기이자 무효.
- ⌞ 니카홀 무뜨아(Nikahu al-Mutah): ‘무뜨아’는 ‘쾌락’이나 ‘만족’이라는 뜻. 일시결혼. 두 남녀가 유학 중일 때, 외국에 취직했을 때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한 달 또는 1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허용.

# 결혼성립의 조건

- ㄴ 잇다(Iddah) 기간 중의 결혼: 이슬람에서는 재혼을 허용하지만 ‘잇다’라는 재혼 유예 기간 있다. 전 남편의 아이가 이혼한 여자의 배에서 자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는지 아닌지를 판단. 따라서 잇다 기간 중의 결혼은 당연히 무효 이자 금기시.



# 결혼성립의 조건

---

- ⌞ 니카홀 쉬가르(Nikahu al-Shgar): 교환결혼.  
서로가 상대의 딸을 배우자로 주고받는 것
- ⌞ 니카홀 무흐림(Nikahu al-Muhrim): 성지순례 시  
결혼
- ⌞ 왈리(Waliyy, 후견인)가 없는 결혼은 무효
- ⌞ 우상숭배자, 무신론자와의 결혼도 무효



# 아주 특별한 결혼 금기

---

- ⌞ 니카홀 무할릴(Nikahu al-Muhallil)
- ⌞ “만일 한 남편이 세 번째로 이혼을 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다시 그 남편이 그녀와 결혼할 때 까지는 그녀와 결혼할 수 없나니라”(코란 2:230)
- ⌞ 한 남편에게 세 번 이혼당한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후가 아니면 첫 남편과 재혼할 수 없는 것. 참 복도 많지유~!

# **아주 특별한 결혼 금기**

## **: 니카홀 무할릴(Nikahu al-Muhallil)**

---

- ⌞ 무할릴은 한 남편에게 세 번 이혼당한 여자가 그 남자와 다시 결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다른 남자를 지칭.
- ⌞ 무할랄라후는 세 번 이혼을 선언하여 여자와 이혼했던 첫 남편을 지칭.

# 무하르라마트(Muharramat) : 결혼할 수 없는 여자

- ⌞ 혈연관계의 여자
- ⌞ 유모
- ⌞ 사돈 관계의 여성: 코란 4장 22절에는 아버지와 결혼한 여자들(즉, 큰어머니나 작은어머니 관계의 여자들), 장모, 며느리나 질녀와의 결혼도 금지. 나 참 나무세스러워서!
- ⌞ 회개하지 않은 간음한 여자: 코란 3장 3절에는 간음한 여자는 간음한 남자 또는 불신자 남자와 결혼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역으로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 아랍 여성 아름다워! 왜? 신비의 베일 ‘히잡(Hijab)’ 때문에?

- ⌞ 코란 33장 59절: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자들에게 아바야로 몸을 가리라고 이르라. 그렇게 해야 무슬림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그 어떤 해로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 ⌞ 무함마드는 여성의 순결을 조개 속의 진주로 비유
- ⌞ 히잡을 쓰게 하는 까닭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 아랍 여성의 아름다움 신비의 베일 ‘히잡(Hijab)’

- ♪ 2005년 5월 파키스탄의 한 유명한 여성 진행자가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방송을 진행하여 명예살인 당함
- ♪ 2007년 2월 20일에는
- ♪ 파키스탄 편집 주의
- ♪ 현직 여성 장관이
- ♪ 히잡을 쓰지 않았
- ♪ 다는 이유로
- ♪ 이슬람 광신도에
- ♪ 의하여 살해당함



# 아랍 여성의 매력 신비의 베일 '히잡(Hijab)'

히잡(hijab)은 두건 모양이다. 히잡은 아랍어로 '가리다' 혹은 '격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파생됐다. 얼굴만 내놓고 상체는 가슴까지 가린다. 입고 벗기가 쉽고 색상도 다양하다. 튀니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나 시리아에서 많이 쓴다.

왼쪽 위부터 좌에서 우로 부르카, 히잡, 차도르, 니캅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 아랍 여성의 가리개

'덮는다'는 의미의 이란어인 차도르(chador)는 이란에서 쓰는 망토형 베일로 머리부터 검은 천을 둘러 얼굴 전체를 가린다. 무슬림 여성들이 외출할 때 아바야와 함께 착용하는데 주로 검은색이며 속에는 흔히 양장을 입는다. 아바야(abaya)는 다소 험렁한 외투같은 장옷이다. 이슬람국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여성들이 입는 전통의상 케바야(kebaya)는 아바야에서 이름을 따왔다.

니캅(niqab)은 눈 아래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다. 주로 히잡과 함께 쓰며 니캅만 따로 쓰지는 않는다. 파키스탄이나 모로코 여성들이 많이 쓴다. 니캅도 색상이 다양하다.

부르카(burqa)는 가장 보수적인 베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가리고 눈은 망사로 처리해 시야를 확보한다. 손에는 장갑을 끼기도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북서변방주, 특히 페샤

# 한국 여성들, 잘 생긴 아랍 남성들에게 시집 갈테요?--대 찬성!

- ⌞ 평생 히잡 쓰거나 혹은 부르카(Burqa) 걸치고 살래요?
- ⌞ 코란 24장 31절: 남녀가 시선을 맞추지 않는 것이 이슬람 예절
- ⌞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그 어떤 것도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됨
- ⌞ 여자가 소리 내어 걸음으로써 남성을 유혹해서도 안 됨
- ⌞ 여자가 살을 드러내 보이면 남자에게 음욕을 품게 하므로 금기시

# 이색문화 엿보기

ㄴ 몽골,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



# 세계의 화장실 문화와 에티켓

---

- ⌞ 하와이 대학 학생 화장실의 발 없는 귀신
- ⌞ 화장실 문은 닫아야 하나, 열어 놓아야 하나?
- ⌞ 인도인의 물처리와 비데(bidet)

# 결말 겸 프로포즈

---

- „여행은 일상을 벗어나지만
- 일상을 그리워하며,
- 종내 일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우리

여행합시다!!!

**Thank U and Bye!**

